

살아가다 보면 울고 싶어질 때가 있다. 몸이 아프면 울고 싶어지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싶어진다. 외로울 땐 조용히 울고 재산을 잃었을 땐 한탄하며 운다.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웃고 싶어질 때도 있다. 몸이 날아갈 듯 기분이 좋으면 웃고 싶어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웃고 싶어진다. 벗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재산이 모여들어올 때는 크게 소리를 내어 웃는다. 만나고 싶던 사람과 만나면 얼굴 가득 미소가 머금어진다.

이처럼 울고 웃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평상심을 유지해 가는 것인 듯하다. 미칠 듯이 슬플 땐 울어서 그 슬픔을 날려 보내고, 정신없이 웃고 싶을 땐 크게 웃어서 냉정을 되찾아간다. 이렇게 보면 매우 쉽다. 울고 싶을 땐 울면 되는 것이고 웃고 싶을 땐 웃으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슬픔과 기쁨, 울음과 웃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점이다.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읽는 독자는 읽고 있는 내내 이러한 감정에 맞부딪혀야 한다.

「허삼관 매혈기」라는 작품은 작가 위화가 쓴 장편 소설 중 3번째 작품으로, 중국의 근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관조하는 형식으로 써낸 소설이다. 이것만 보면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 「살아간다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막상 작품을 들여다보면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놀라울 만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주인공인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삶이 기막히게 곡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걸 써내려간 작가의 문체가 전과 달리 워낙 해학적이라 「허삼관매혈기」라는 소설은 무척이나 기묘한 색채를 가진다.

이 책을 접하게 되면 우선 ‘매혈(賣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진다. 매혈이란 말 그대로 피를 파는 행위이다. 헌혈(獻血)이라 하면 봉사와 나눔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한 글자를 바꾸어 매혈이 되면 속되기 그지없는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되니 재미있다. 그러나 소설 속 허삼관의 매혈을 치졸하고 속되

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헌혈이 남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면 허삼관의 매혈은 자기와 가족의 삶을 위한 행위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사공장의 일꾼, 후에는 제련공이라는 직업을 가지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위기들은 그가 피를 팔아서야만 극복할 수 있었다. 처음엔 흥미로 피를 팔았고, 그 돈으로 부인인 허옥란을 맞이한다. 아들인 일락이가 저지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피를 팔며,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를 팔기도 한다. 식량이 없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피를 팔고, 둘째아들 이락이의 상관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또 피를 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병에 걸린 일락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피를 팔는 그의 모습은 소설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이 소설이 다른 무엇도 아닌 ‘매혈’을 제목으로 내세웠다는 데에서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실 「허삼관 매혈기」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역사소설에 속한다. 여기서 굳이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일련의 역사소설들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는 역사가 차지하는 입지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허삼관은 국공내전과 대약진, 문화혁명을 포함하는 중국 현대사의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지만 그에게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공 내전도 대약진도 문화혁명도 허삼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주인공들이 가장 신경 쓰고 고뇌하는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 집안의 궁핍, 자식들의 장래 같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다. 이 소설 속에서 역사 속 사건들은 이러한 사소하고 소시민적인 문제들보다 결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허삼관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그대로 들여내 전혀 다른 시대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도 그다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처럼 이들은 마치 끊임없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인위적인 역사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제목을 「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 「현대사는 연기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허삼관 매혈기」라고 한 것은 위의 사실들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의 한 부분일 것이다.

국내에는 「허삼관 매혈기」 이후에 출판된 「세상사는 연기와 같다」에 실린 작가의 인터뷰에서 그는 「살아간다는 것」과 「허삼관 매혈기」에서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역사적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며, 자신은 그저

진정한 인간(특히 전형적인 중국인)을 그려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털어놓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을 역사적 사실과 연관을 지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정작 초점에서 벗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허삼관의 ‘매혈’행위와 닮아있다. 마치 피를 팔고 또 팔아도 결국에는 새로운 피가 생겨나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억척스럽게 넘기고 다시 시작하는 인물들이 이 소설에는 등장한다.

작가는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 구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이 중국인이라는 것은 역시 일반 민중을 말하는 것일 터인데,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이들은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삶에 훌륭히 적응해내는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그런 적응을 통해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채우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다. 잘 보면 허삼관 집안의 대소사(大小事)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허옥란과의 혼인에서부터 그런 모습은 나타난다. 허옥란이 처음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사실 허삼관이 아니라 하소용이라는 남자였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허삼관에게 시집을 가게 된 후에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하소용보다 나은 것 같다’며 납득해 버리는 장면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대약진과 문화혁명, 기근, 일락이의 병 등으로 집안에 대소사가 발생해 삶의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허삼관네 가족은 정말 우직하게도 잘 적응해낸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피를 팔 수 없게 되는 때, 곧 일생에 걸친 비장의 돈벌이 수단을 상실한 이후에도 허삼관은 예전에 피를 팔고 나면 언제나 먹던 돼지 간볶음과 황주로 모든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 무엇인가에 적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다. 허삼관과 여러 인물들은, 현실에 적응해 나가면서 변하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그들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는 항상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들이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면서도 한결 같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망각’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꼭 이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

람들은 많은 사실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어쩌면 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머릿속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허삼관 매혈기」 속에서도 이런 망각의 예는 대단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허삼관과 허옥란은 본의든 그렇지 않든, 한 번씩의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서로에게 들키게 된다.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큰 문제였지만 이들은 한 바탕 서로에게 화를 폭발시키고서는 이내 잊고 만나. 마음속에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실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역시 ‘망각의 힘’이다. 허삼관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쌀을 안 사오겠다며 심통을 부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사는 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허옥란과 하소용의 사생아인 일락이에게 보이는 허삼관의 태도 또한 그것이다. 일락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 허삼관은 물론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그의 일락이에 대한 애정은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국엔 이기게 된다. 허삼관이 일락이를 데리고 국수를 사먹으러 가는 장면, 일락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팔러 다니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도 가장 감동을 자아내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여기서도 허삼관은 일락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 하는 것이다. 허옥란도 이에 질세라 잇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 허옥란이라는 여성은 참으로 억척스럽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다. 미모의 여인이지만 허영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소설 속에서 허옥란은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허삼관에게 욕을 하며 ‘네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너랑 다시는 안 잘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 5년 동안 아이를 3명이나 낳는다. 역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허삼관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탓도 있다며 결국엔 용서하게 된다. 가볍고 방정맞지만 성실하고 순박한 면을 가진 허삼관, 억척스럽고 까다롭지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허옥란은 둘 다 ‘망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주인공 부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망각의 예를 보여준다. 허삼관 부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잊고 모르는 척 하며, 하소용의 부인은 일락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난 감정을 잠시 잊고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보태준다.

이처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정체나 가족의 결속을 위협하는 많은

사실들을 잊으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의 망각은 결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 것들을 잊는 법을 삶을 통해 자연스레 익힌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 허물을 한 꺼풀씩 벗으며 성장해 간다. 허삼관은 일락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후에 하소용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미 잊은 것들을 불러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다. 소설 속에서 역사적 사건은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문화혁명이 닥쳐왔을 때 허삼관 일가는 위기를 맞이한다. 그들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인 허옥란의 과거가 트집을 잡혀 허삼관은 집에서 비판대회를 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여기서도 승리하고 가족을 지켜낸다. 이미 한 번의 망각으로 성장한 그들이었기에 승리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사건들은 결코 가벼운 일로 끝날 일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의 모든 사건들은 시종일관 해학적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런 해학이 주된 표현 도구로 삼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이다. 이런 면은 작가의 이전 소설들, 특히 중편소설들과 비교해서 참으로 많이 바뀐 점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중편소설들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이야기들을 다룬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이다. 이런 차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허삼관 매혈기」가 역사소설이기보다는 ‘인간소설’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엄격한 역사소설에서는 역사의 전개를 위해 등장인물들의 일생이 좌지우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소설에서는 다르다. 아무리 거대한 역사의 흐름일지라도 그것은 한 인간의 일생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무엇인지 모를 계기가 작가가 중편소설을 쓴 시기와 이 소설을 쓴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이다. 작가는 그의 중편 소설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삼관과 기타 여러 인물들의 일생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대사와 행동을 선별하는 데에 주로 힘쓴다. 그렇기 때문에 「허삼관 매혈기」속의 해학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결코 코미디를 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부담 없이 내던지는 순박하고 솔직한 대사가 이 소설의 해학을 이룬다. “엄마가 우는 건 형이 하소용을 닮았기 때문이에요”와 같은 일락이의 솔직하기 이를 데 없는 대사가 숨기기 좋아하고 비꼬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유머답지 않은 유머로 통렬하게

와 닫는 것이다. 예전에 노신 선생이 “풍자란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해학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웃음과 울음의 문제이다. 「허삼관 매혈기」를 읽으며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의 우여곡절을 보며 안타까워 하지만 결국엔 웃고 만다. 그러나 소설 속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결코 웃고만 있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우리네 삶에 아무리 위기와 고뇌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삼관을 보듯이 만약 그것을 밖에서 관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그에게 있어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되도록 웃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은 밝혀 둔다. 소설 속에서 허삼관은 말한다. “삶은 돼지가 뜨거운 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리저리 살아지고 나면 언젠가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두렵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무엇보다 삶은 돼지도 웃는 얼굴이라야 고사에라도 쓰이지 않는가.